

---

# 한국경제 긴급진단: 현황과 대책

2015. 12. 17

---

1. 최근 경제현황 / 1

2. 현재 상황은 위기인가?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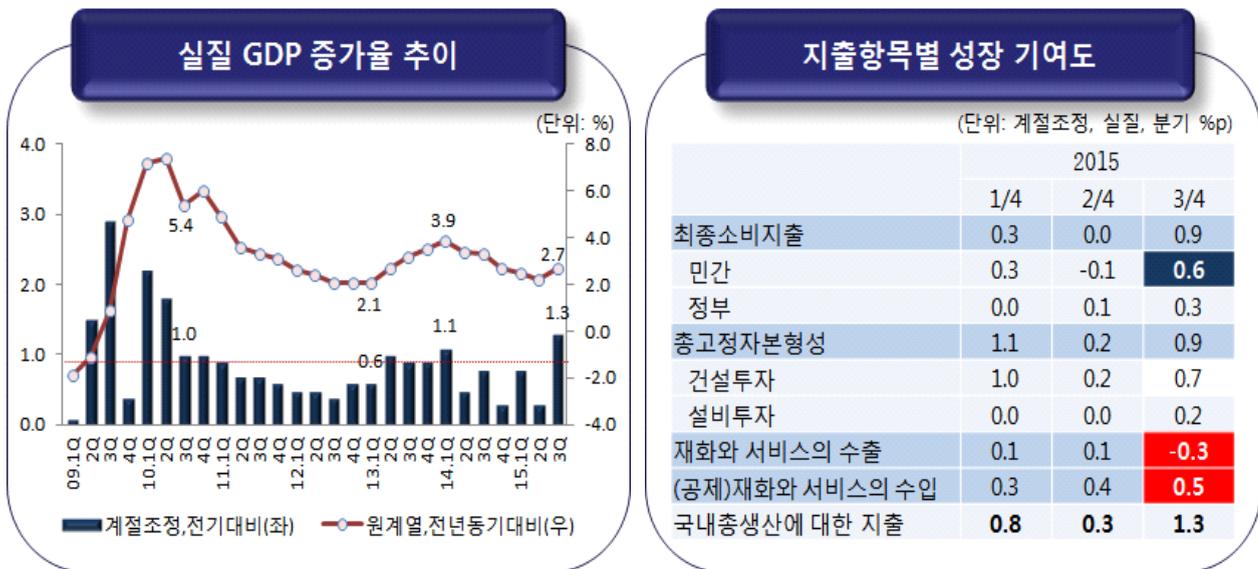
3.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불황의 위기 / 5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최근 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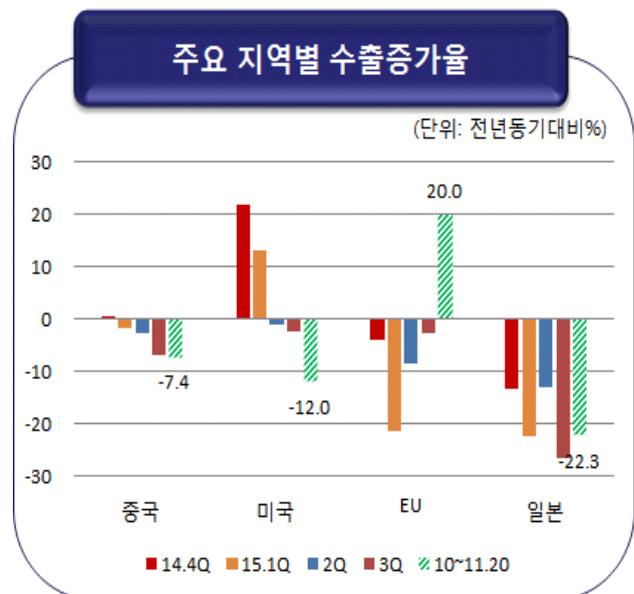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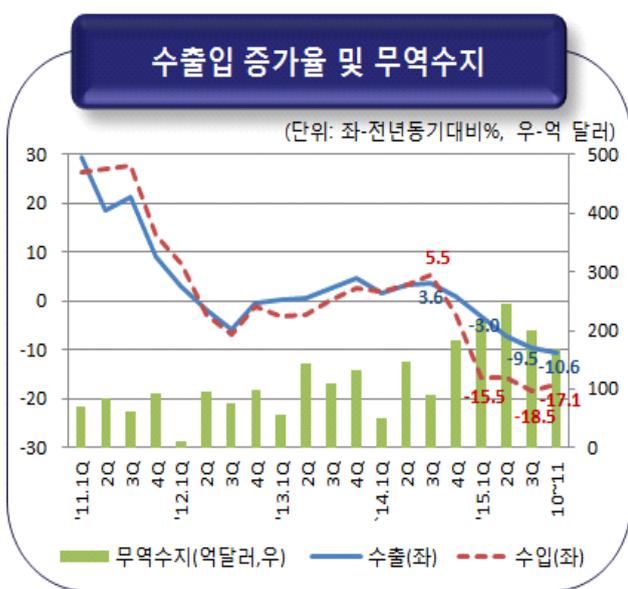
○ 성장률, 3/4분기 1.3%(전기대비)로 지난 분기(0.3%)대비 상승했으나, 회복세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간소비, 건설투자 회복으로 내수 5분기 연속 1% 미만에서 탈피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1%p에서 0.6%p로 증가했으나, 메르스사태로 인해 지연된 소비가 시현된 기저효과가 반영된 수치
- 대외부문 부진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기 -0.3%p에서 -0.8%p로 오히려 감소



○ 특히, 수출 부진은 심각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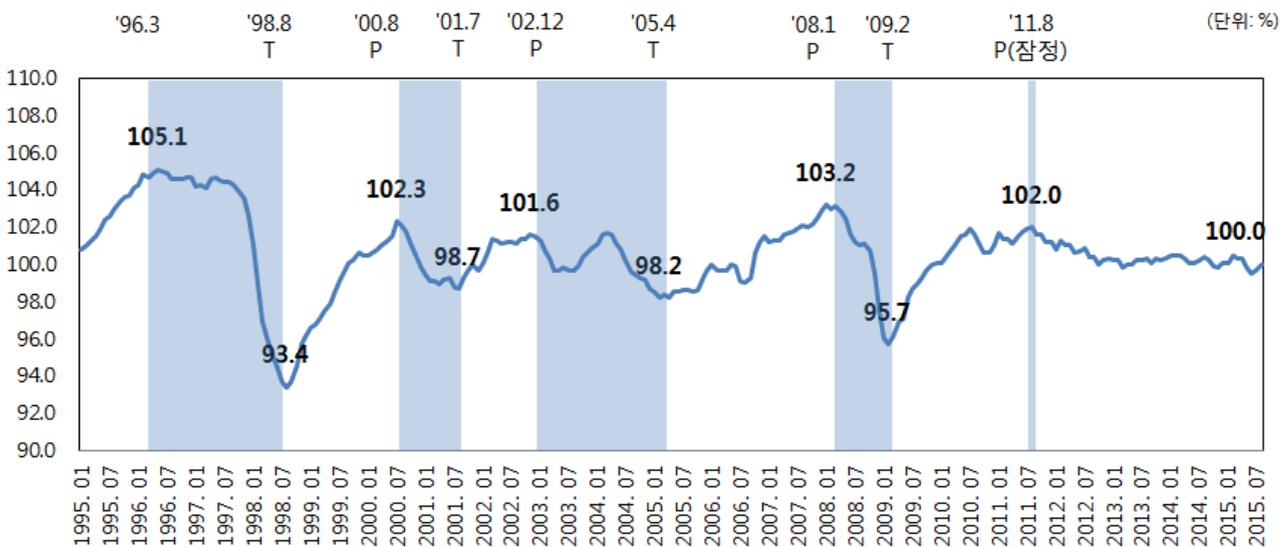
- 1월~11월 수출 4,84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4% 감소
  - 수출증가율: -9.5%(3분기) → -15.9%(10월) → -4.7%(11월)
- 지역별로 보면, 對EU 수출의 반짝 증가에도 불구하고 對중·對미·對일 수출 모두 감소
  - 對中 수출 증가율(%): -6.9%(3분기) → -8.0%(10월) → -6.8%(11월)
  - 1~11월 수출 지역별로도 모두 감소: 미국(-0.1%), 일본(-21.0%), 아세안(-11.4%), EU(-6.9%)
- 경상수지(1~10월)도 8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212억 달러) 32% 확대 되었으나, 이는 불황형 흑자 지속의 결과임



○ 현재 상황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L-자형 경기국면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8월 정점을 찍은 후 여전히 하락세에 있으며,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장기 L-자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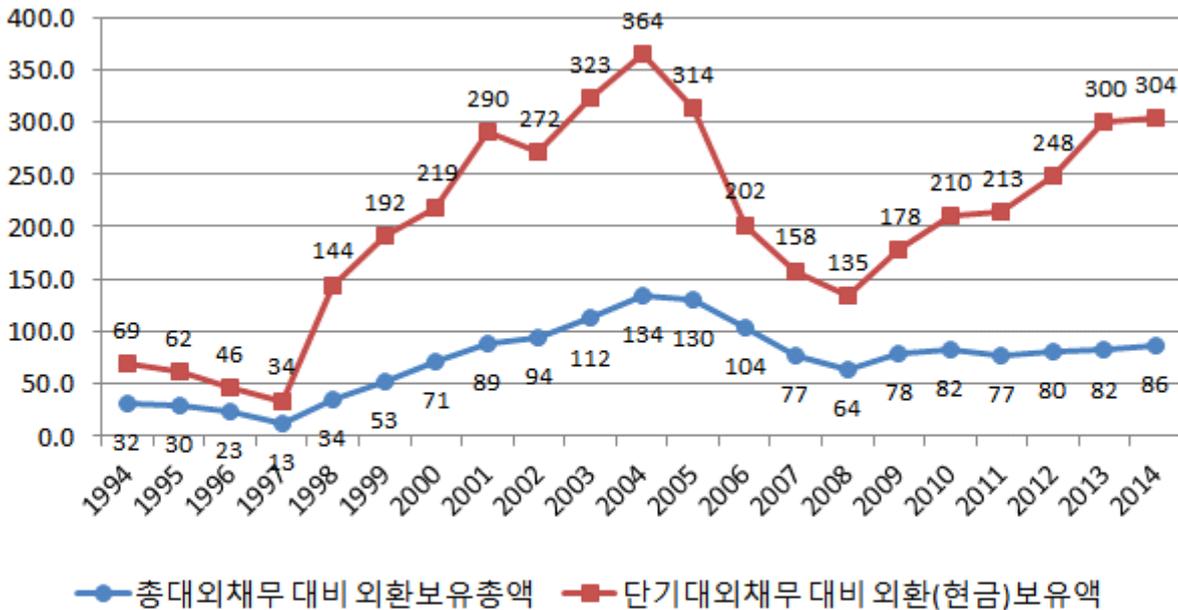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광공업생산, 서비스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 내수출하, 수입,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7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하고 경기순환만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보여줌



## 2. 현재 상황은 위기인가?

○ 주요 대외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음

- 외환보유고 확충 : 330억 달러(1996) → 3,640억 달러(2014)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율 안정 : 48.5%(1996) → 27.1%(2014)
- 한국 신용등급 : Aa3(Moody's), AA-(S&P), AA-(Fitch)
- 단기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현금) 비율 : 13%(1997) → 8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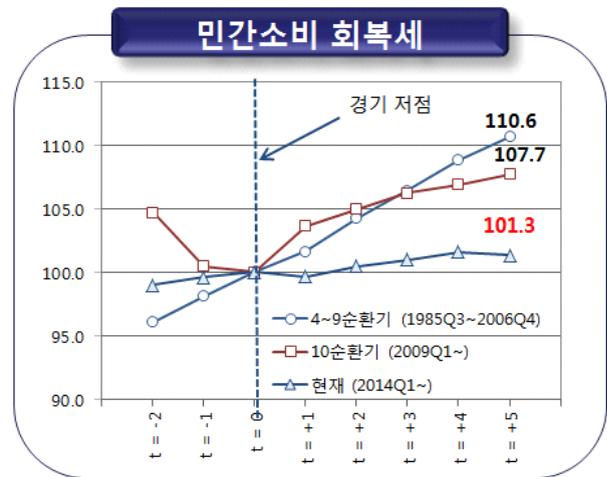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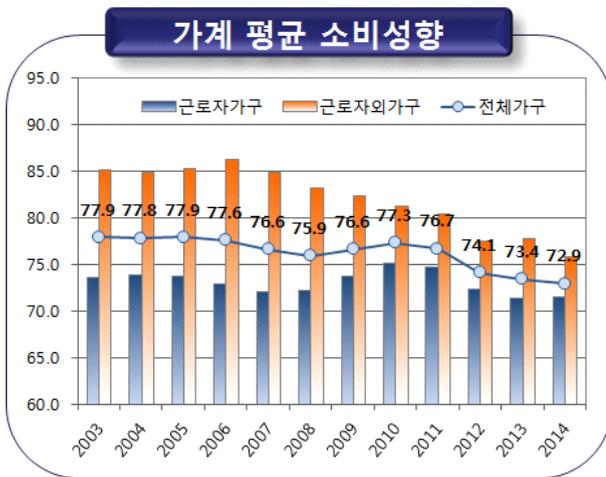
○ 그러나, 실물로부터 오는 다른 차원의 위기 가능성은 점증

### 3.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불황의 위기

#### ① 대내적 취약성

○ (민간소비 침체) 민간소비는 장기침체 양상을 보임

- 민간소비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를 보임
  - 노후 대비 등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5년 77.9%에서 서서히 하락하여 2014년 72.9%를 기록하여 5%p 하락
  - 그 결과,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민간소비 회복은 저조
    - : 1985년 이후 평균을 보면, 우리 민간소비는 경기저점 통과 5분기만에 10.6% 증가
    - : 그러나 2014년 1분기 이후 현재까지는 1.3%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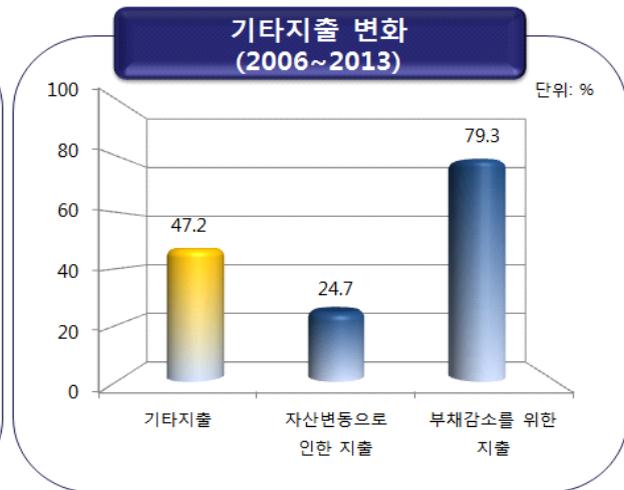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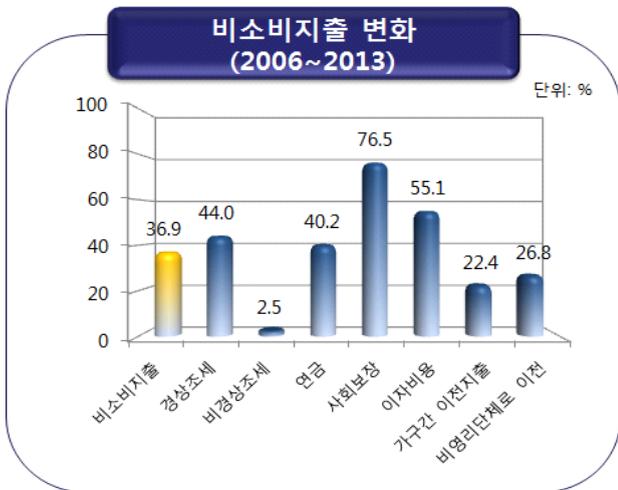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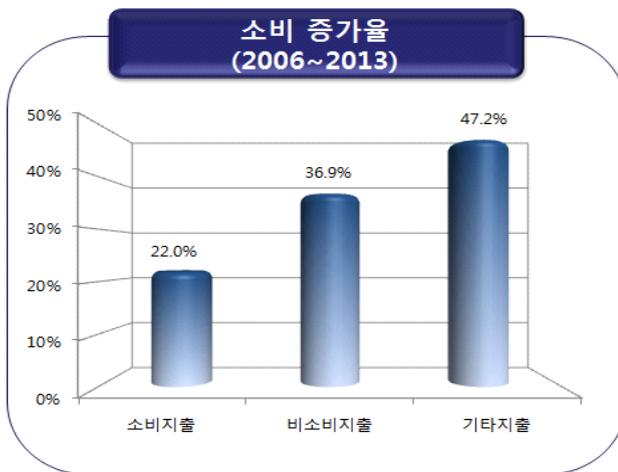


-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민간이 소비를 자제한 결과
  - 2006~2013년 사이 가계의 경상소득은 31.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22.0% 증가에 그침

- 순연령대에 걸쳐 경상소득 증가율보다 연금저축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예: 20대 경상소득 47%, 연금저축 255%)

- 가계는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을 크게 증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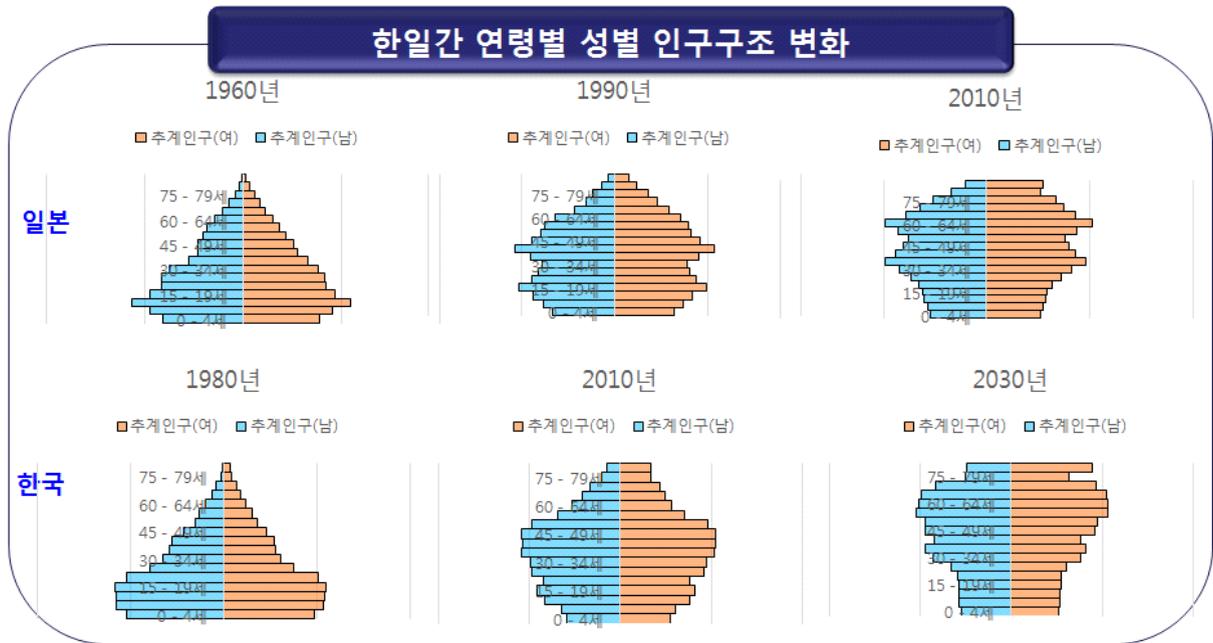
- 비소비지출 중 증가세가 뚜렷한 부분은 사회보장(76.5%), 이자비용(55.1%), 경상조세(44.0%) 및 연금(40.2%)
- 기타지출 중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79.3% 증가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어도 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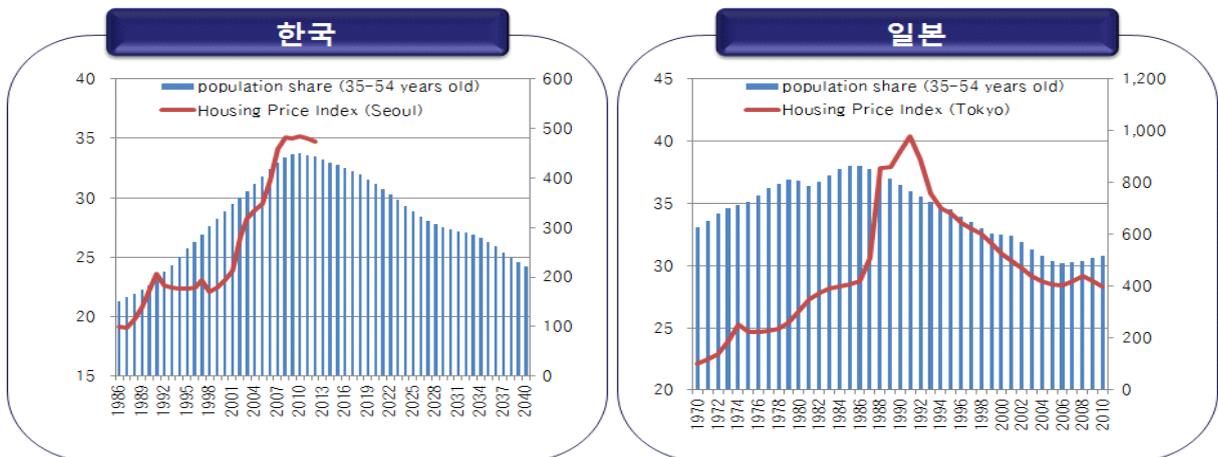
○ (내수 부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일본형 만성적 내수부족 및 장기침체의 가능성을 더욱 높임

- (인구구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20년 시차를 두고 유사하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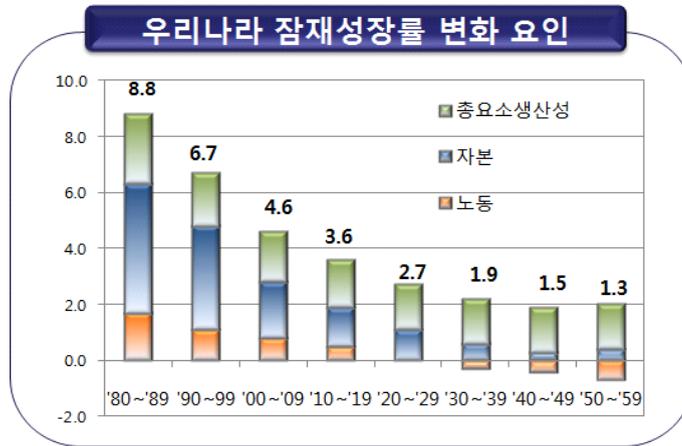


- (부동산 시장) 35~54세 핵심 인구 비중 감소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을 증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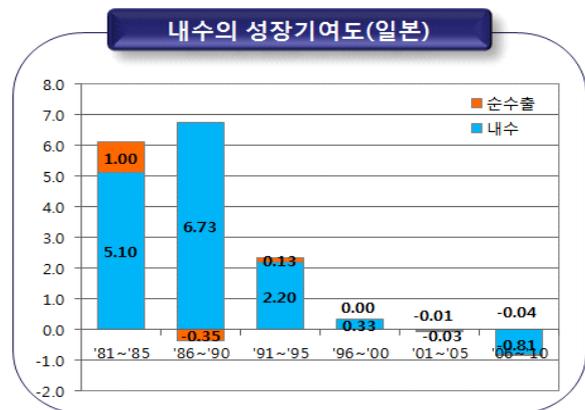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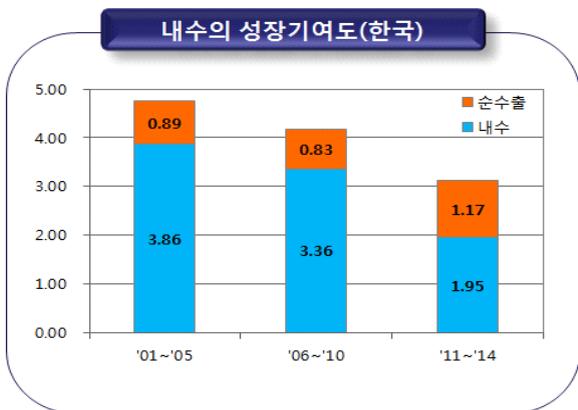
• 부동산시장 침체는 내수기반을 붕괴시킴



- (노동투입 및 투자 하락) 그 외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 및 투자율 하락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킴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때문에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30년 이후 (-)로 전락 전망



-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급감하는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1989년 일본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호
- GDP는 세계 2위, 성장률도 5%대
-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고 수출도 세계 3위였으며, 저축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두배 수준

	일본 (1989년)	한국 (2014년)
GDP (Current US\$)	3조 170억달러 (세계2위)	1조 4,100억달러 (세계13위)
GDP성장률	5.4%	3.3%
1인당GDP	24,506달러 (세계6위)	27,970달러 (세계26위)
출산율	1.54 (1990년)	1.21
15세미만 인구비중	18.8%	14.5%
65세이상 인구 비중	11.6%	12.6%
수출액 (Current US\$)	2,747억달러 (세계3위)	5,727억달러 (세계6위)
가계저축률	14.6%	6.9%
(일반)정부부채	48.9%	35.7%
지니계수	0.304 (1985년)	0.302
고용률 (15~64세)	67.7%	65.3%
물가상승률	2.3%	1.3%

☞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복합형 불황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침체 이전 일본경제는 G2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경제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

○ (부채 증가) 기업부채에서 가계부채로 전가, 취약성은 확대

- 정부, 기업, 가계 등 총부채(GDP대비)는 96년 102%에서 2014년에는 144.5%로 상승

<표> GDP대비 총부채 비중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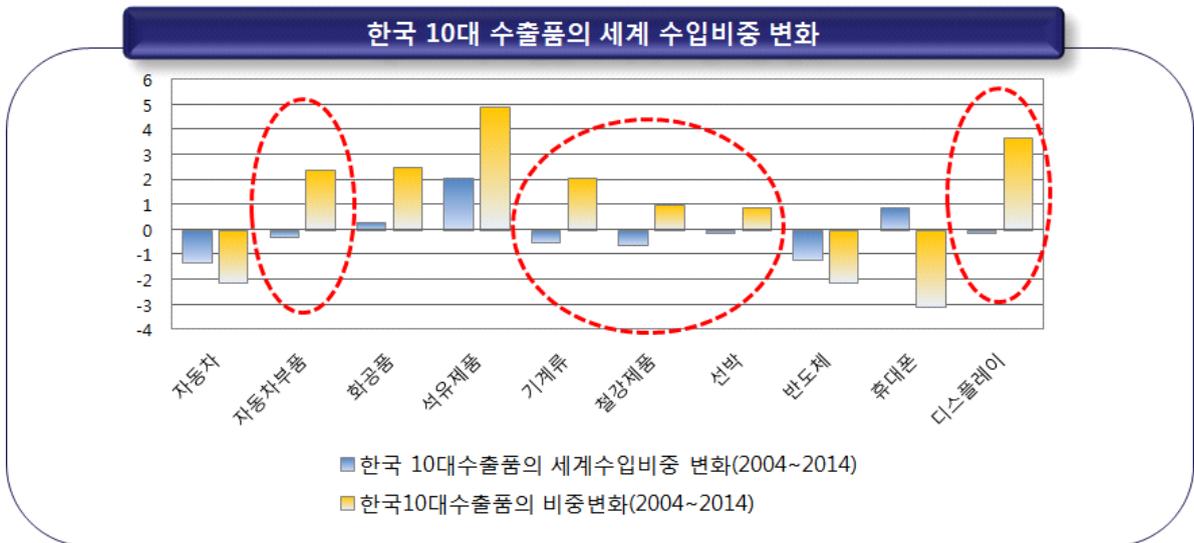
(단위: %)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1996년	1.3	56.3	44.3	102.0
2014년	0.9	62.8	80.8	144.5

○ (구조적 수출부진) 한국 수출, 글로벌 교역구조와 비동조화되는 모습

- 우리 수출구조가 세계 교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한국 10대 수출품목의 세계교역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수출비중은 증가 :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 세계수요비중 증가한 반면, 한국수출비중은 감소 : 휴대폰
- 즉, 점차 세계적으로 덜 팔리는 품목에 우리 수출은 집중하고 있는 양상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비중은 2004~2014년 중 10.1%p 증가한 반면, 이 품목들의 세계교역비중은 0.7%p 감소(우리 주요 수출품의 국제거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

(단위: %p)



○ (기술적 우위 축소) 좁혀지는 한·중 산업경쟁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기술수준 평가』 (2015년)
- 중국과의 기술격차 2년 사이 0.5년 축소(2012년 1.9년 → 2014년 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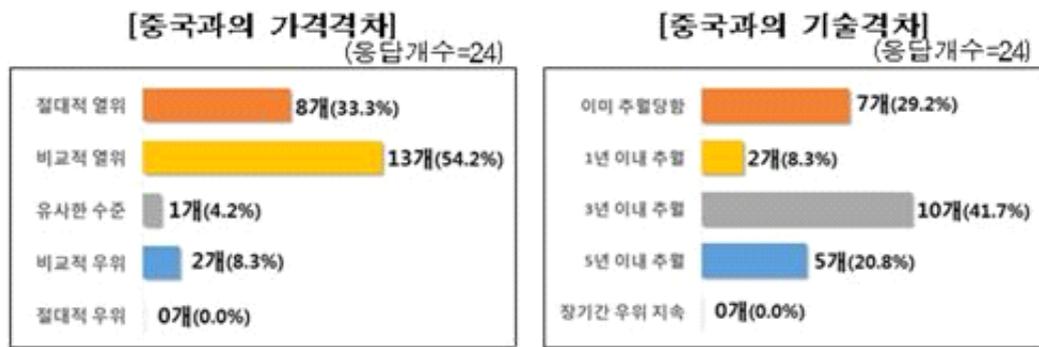
<표> 미국 대비 기술 격차

	한국		중국		일본		EU	
	2012	2014	2012	2014	2012	2014	2012	2014
기술격차(년)	4.7	4.4	6.6	5.8	1.6	1.6	1.4	1.1

- 전경련 조사 결과(12/6)

-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 : 21곳
-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대답한 단체 : 19곳

[그림]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3년내 거의 소멸 예상



○ 신성장엔진 발굴 실패 :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

- 지난 10년 동안 주력 수출품목 불변 : 신성장엔진 발굴의 실패
- 신성장엔진 발굴 실패는 제조업의 실적 부진으로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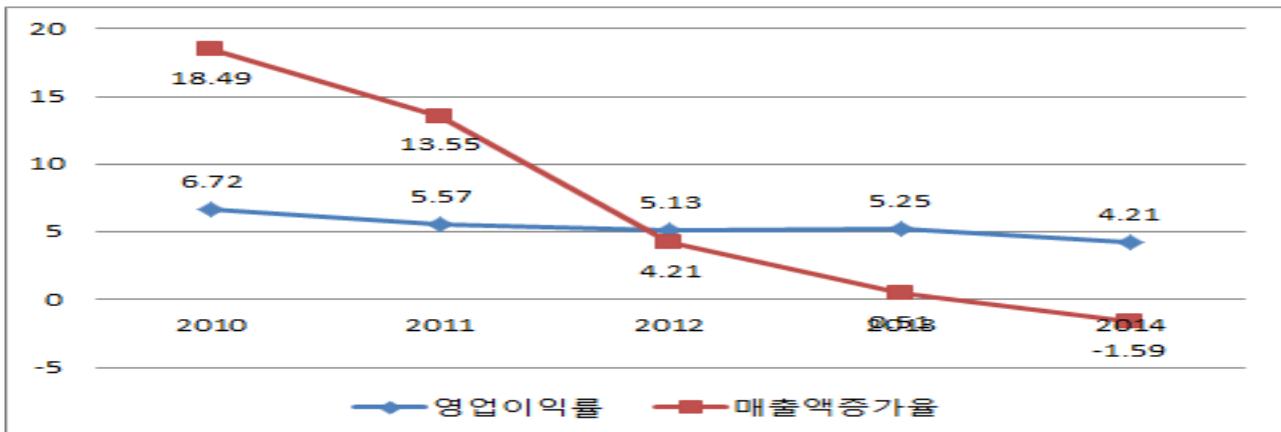
※ 2014년 제조업 매출액의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은 1961년 이후 처음

<표> 10년 사이 변하지 않은 10대 수출품목

	2015	2010	2005
1위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위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3위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4위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석유제품
6위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7위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8위	합성수지	합성수지	철강판
9위	철강판	철강판	자동차부품
10위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영상기기
10대비중	59.3	62.2	60.0
<b>변화 품목</b>			
'05→'10		영상기기out,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in	
'10→'15	컴퓨터 out, 플라스틱제품 in		

[그림] 추락하는 제조업 실적

(단위: %)



## ② 대외적 취약성

○ 외적 취약성 : 미국금리인상, 중국경제불안, 엔저 등으로 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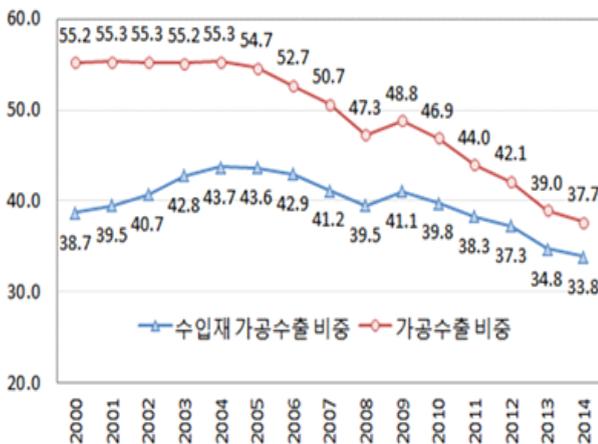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유동성 유출 → 통화, 주식가치 하락  
→ 달러표시 채무상환부담 가중, 해외자금조달 비용, 구매력 감소  
→ 금융 및 실물경제 불안 → 한국의 對신흥국 수출 타격

※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한국 수출비중(2014년 기준)은 ASEAN 14.8%, 중남미 6.3%, 중동 6.1%

- (중국 경제 둔화 및 중간재 자급률 상승) 중국 수입 감소 → 한국의 對중국 수출 특히 중간재 수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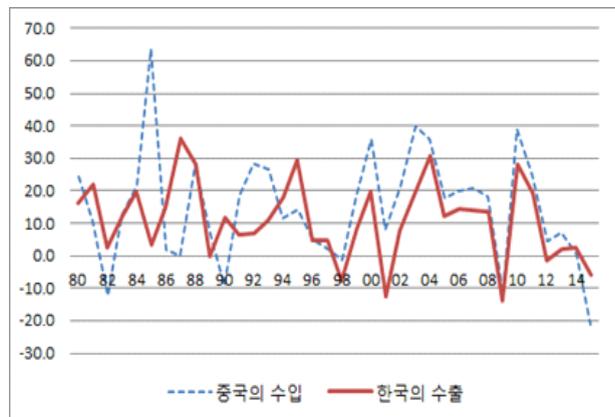
중국의 가공수출비중 축소

(단위: %)



98년 이후 중국수입과 한국 수출 동조성

(단위: %)



- (위안화 절하) 중국 가격경쟁력 향상 → 중국 외 3國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 약화

<표> 한·중 무역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화

	2004	2014
한·중 수출경합도 지수(미국시장)	0.533	0.592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	0.524	0.348

- (엔저 후폭풍) 일본의 기술적 우위 산업들은 그동안 수출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이윤 확대에 주력 → 향후 공격적 수출단가 인하 여지, R&D, M&A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충 → 추가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기업들은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상대적 열세 가능성

**(결론)**

- 현재 한국경제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돌발 위기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실물부문의 경쟁력 상실과 국제경제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 문제는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무성장 상태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임(일본의 1990년대 경험)
- 따라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시급함